

“직접 체험하며 공연 관람해요”

인천양촌초, 문화체험학습 ‘댄스 뮤직 판타지’ 관람



인천양촌초등학교(교장 김병희) 1~3학년 학생들은 6월 30일 문화체험학습의 하나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과도 앙상블의 ‘댄스 뮤직 판타지’ 공연을 관람하며 체험했다.

제일 먼저 해설자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관악기 트럼펫, 트롬본, 루바, 호른의 음색, 음높이, 생김새, 부는 방법, 소리의 차이를 소개해줬다. 그리고 악기 부는 체험을 다섯 군데로 나눠 줄을 서서 학생들이 직접 연주해 봤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소리가 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가끔 소리가 낮을 때는 학생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악기 부는 체험이 끝나자 금관악기 5중주가 시작됐다. 3학년 아이들이 트라이앵글과 캐스터네츠를 들고 무대에서 같이 협연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클래식의 대표작인 출품인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부터 피아졸라의 탱고에 이르기까지 유아하고 경제한 리듬의 춤극들을 쉽고 재밌는 해설을 통하여 즐길 수 있었다.

클래식 음악을 지루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편안하며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관람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인용섭 기자 as@



학생들의 기대 이상 실력에 놀란 하루

인천청라초 영어토코콘서트

인천청라초등학교(교장 최병민)에서는 7월 4일, 6일 이틀 동안 여학생실 영어 토코콘서트를 진행했다.

본 대회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5~6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인 1팀으로 총 16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 대회는 1차 인터뷰(7.4)와 2차 영어 토코콘서트 본선(7.6)으로 진행됐다. 그 중 영어 토코콘서트 본

선은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 주제로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쓰고 잠깐의 연습 시간을 가진 후 바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흥미를 보였다.

학생들은 평소 수업에서 활용했던 인터뷰, 뉴스, 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발표를 했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의 모습과 적극적인 자세에서 영어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기대 이상의 영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인용섭 기자 as@

더 많은 학생들에 양질의 도서 제공

인천병방초, 꿈나르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북 토론 지원

인천병방초등학교(교장 원은숙)는 7월 3~4일 이틀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북 토론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북 토론 지원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 학생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배부하고 독후감 대회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천병방초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약 11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도서 선정에 독서토론을 통해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원은숙 교장은 “학생들 하나하나를 교실실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마음의 안정에 대한 좋은 말씀과 함께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줬다.”

교장 선생에게 책을 받은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책을 주셔서 답답한 사탕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신나는 경연이 왔다.”, “방학 동안 꼭 책을 다 읽고 독후감 대회에 출품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업무 담당교사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원정책도 감사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원해주는 사는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

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을 도닥이고 필요에 민감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s@

수원시, 영화 보고 행복을

찾아기는 ‘행복영화제’ 개최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와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12일과 26일 저녁 7시 영상미디어센터 2층 은하수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이영문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영화제’를 연다.

2015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복영화제’는 참가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특별한 영화제다.

영화를 감상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영화 속에 담긴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일에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문라이프’가 상영된다.

미국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흑인 소년 이성재에 관한 다큐 영화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다시 완전한 성인으로 커가는 10여 년간 이야기를 한 편의 시처럼 그려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상영작은 사람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감성으로 잘 알려진 고래에다 호르츠 감독의 2016년 작 ‘태풍이 지나가도’다.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4명의 가족 이야기다. 사랑과 상처가 공존하는 어느 평범한 가족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는 작품이다.

영화 관람 후 이영문 교수와 함께하는 토코 콘서트가 열린다.

관객들 각자 다른 시선으로 감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간단히 풀어놓고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관객 속에서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희망과 행복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suwonmental.org>)나 전화(031-253-5737)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추사 김정희의 예술혼은 물론,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정신, 과천의 역사를 청소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의 선비, 추사의 하루”, “국보180호 세한도 이야기”, “두근두근 나도 추사인형이야” 라는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8월 13일 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운영된다.

“조선의 선비, 추사의 하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선시대의 선비가 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도록

단체 문인화화를 이해하고 선비의 정신과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보180호 세한도 이야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일예 야간 운영된다.

국보 180호인 세한도를 중심으로 추사박물관 전시를 재구성해보고 온 가족이 참여 세한도 족자 만들기 체험을 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두근두근 나도 추사인형이야”는 초등학교 1~3학년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추사 김정희가 과거시험을 통해 인형이 되는 과정을 미션해결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조선시대의 신분, 사회, 문화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효성남초, 진로동아리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활동

인천효성남초등학교(교장 구성준) 5, 6학년으로 구성된 ‘꿈·끼 찾는 진로동아리’ 학생들이 7월 5일 인천계양구에 있는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활동을 했다.

계양청소년 경찰학교에서 이현기(현 서부지원단 계양 청소년 경찰교) 감사로부터 경찰 장구 체험, 경찰 체험, 사격체험, 과학수사 체험, 근무복 체험, 경찰 직업 되기 등의 체험을 해 봤다.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에 참여한 정모 학생은 “과

직으로 법인을 찾는 일이 신기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총을 쓰고 지분을 채취하는 등 영화에서나 보았던 일을 실제로 해보니 너무 실감 나고 재밌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이 지역 경찰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물론 경찰관들이는 직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인용섭 기자 as@

“장난감 빌리러 오세요”

수원시 캠프 장난감도서관 개관

수원시와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캠프 경기지역본부 신사육(영풍구 월드컵로 150번길 33)에서 ‘수원시 캠프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다.

도서관은 캠프 경기지역본부 신사육에 있다. 캠프가 신사육을 지으면서 지역주민과 학생·소통하게겠다는 취지로 1층 공간 일부를 수원시에 무상인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비치된 장난감 일부도 기증했다.

‘캠프 도이월드’라는 이름을 붙인 장난감도서관은 167㎡ 공간에 장난감 900여 점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도서 450권, DVD 300개를 구매하고 장난감도 일부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20여 일간 회원모집을 하고 최종 준비작업을 거쳐 8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캠프 장난감도서관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 경제’ 사업의 하나다.

공유 경제는 물건, 공간, 재능 등 유휴 자원을 개인이 나눠 사용하며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유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므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 장난감도서관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된다. 만 5세 이하 자녀(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를 둔 수원시민은 누구나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원은 공공형 후원으로 선정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회비 1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열리는 장난감·도서·DVD를 빌릴 수 있다.

캠프 장난감도서관 개관으로 수원시 장난감도서관은 9개소가 됐다.

수원시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캠프 경기지역본부 신사육(영풍구 월드컵로 150번길 33)에서 ‘수원시 캠프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다.

도서관은 캠프 경기지역본부 신사육에 있다. 캠프가 신사육을 지으면서 지역주민과 학생·소통하게겠다는 취지로 1층 공간 일부를 수원시에 무상인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비치된 장난감 일부도 기증했다.

‘캠프 도이월드’라는 이름을 붙인 장난감도서관은 167㎡ 공간에 장난감 900여 점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도서 450권, DVD 300개를 구매하고 장난감도 일부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20여 일간 회원모집을 하고 최종 준비작업을 거쳐 8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캠프 장난감도서관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 경제’ 사업의 하나다.

공유 경제는 물건, 공간, 재능 등 유휴 자원을 개인이 나눠 사용하며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유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므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 장난감도서관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된다. 만 5세 이하 자녀(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를 둔 수원시민은 누구나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원은 공공형 후원으로 선정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회비 1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열리는 장난감·도서·DVD를 빌릴 수 있다.

캠프 장난감도서관 개관으로 수원시 장난감도서관은 9개소가 됐다.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주세요!!!

1. 화끈하게 먹어요!
2. 감칠맛나게 먹어요!
3. 손맛이 날래요!

매일 저녁 1,000원부터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주세요!!!

1. 화끈하게 먹어요!
2. 감칠맛나게 먹어요!
3. 손맛이 날래요!

매일 저녁 1,000원부터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71, 1층 (숙련동) 축원초교 정문앞
예약문의 (032)834-7740 | 단체식 및 단체주최장환비